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교역자보건의주입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4남선교회와 6여선교회 주관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집회는 9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순서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연휴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2학기 주일성경공부가 18일 주일 오전 9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봄에 사과분양을 신청하신 분은 생협에서 사과를 받아가지기 바랍니다.

논밭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식 당 봉 사 :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조병주 박경원 남창모 이소순  
 9/11 식 당 봉 사 : 박홍재 차혜심 정연희 한상경 김현주 이광욱 정복순  
 오늘설거지봉사 : 전해리 김지호 김지윤 고은숙  
 다음 주 설거지 : 박인혁 신진식 권혁신 김정행  
 새 교 우 : 한기택(5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에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다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분주한 생활을 하던 우리를 고요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처럼 정리되지 않던 우리의 생각이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 주시고, 많은 일로 들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고요하지만 생명력 가득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신뢰를 잃어가는 이 사회를 붙잡고 지켜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안 좋은 소문만이 무성해지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 마11:28-30 ..... 인도자
- ♣ 교 독 문 ..... 72. 이사야58장 ..... 다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대표기도 ..... 조병무 장로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380(통424). 나의 생명 되신 주 ..... 다함께
- ♣ 성경봉독 ..... I. 갈1:6-10 ..... 신진식 선생  
 II. 고전12:14-26 ..... 유경순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 찬양대
- 말 씬 ..... I. 다른 복음은 있습니다 ..... 김재흥 목사  
 II. 공동체의 멋 ..... 한인철 목사
- 거둬 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손성현 안경아 한완식 임정자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강순배 박상준 최경미 김용진 박효선 김정애B김종락 박영신  
 김중수 이순정 박규석 박경선 방 민 방 준 배삼순 권호진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정재정 조문규 진정숙 김수진B조병역 조정연  
 한인철 조윤숙 리 불 허호범 박성실 민병배 문현미 홍성식 이유리  
 강세기 이소애 정선희 김보라 곽새롬 무명

### 월정헌금:

구명자 권미정 권혁신 김지운 박범희 박미영 배부레 서정순 이광섭  
 김수연 이유선 방극숙 장재영 김재영 하현철 최성애 송동준 김진경  
 윤성종 김윤정 홍복선 류건형 이주은 한상균 이슬기 한정애 무명

### 감사헌금:

홍성식 이유리 박시내 임 영 정경례 오주은 김상욱 송현주 박규인  
 한완식 임정자

### 녹색꿈헌금: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구성실 무명

### 생일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이유선

	장혜숙	백혜숙	연합속회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임정자	최경미		차혜심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안정숙	진정숙		최희영
	박홍재	곽권희		임경수
	박효선	허정운		김정애
	이순정	김금순		강순배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정영선
	이영란	박미영		이영란
	박혜경	조항미		최영혜
	김재흥	오자영		교회
	김기석	이건식	교회	

## 나도 그들처럼

백무산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 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이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었습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운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	새교우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더욱 사랑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 지역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특히, 연약한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이 귀한 사랑의 사역에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	한인철 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4남 · 6여 주관 예배 설교 : 이성운 전도사	9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공동기도	권미정 집사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이건식 집사

9월	영접위원	조병무 이호원 정원석 안정숙 김현영 박경원
	헌금위원	한상익 안홍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눈물 흘려 본 사람은 남의 눈물을 닦아 줄 줄 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 며칠 동안 병원 복도에 꽂혀 있는 얇은 책 두어 권을 가져다 읽었다. 거기서 읽은 짧은 글들 중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글이 하나 있다. 강아지를 팔려나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다.

시장에 강아지 몇 마리를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데 남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를 사겠다고 했다. 그 아이는 강아지값을 물어보곤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견주어 보기도 하고 여러 마리를 살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다가 그중 한 마리를 사겠다고 했다. 그 아이가 사겠다고 하는 강아지는 다리 하나를 못 쓰는 강아지였다.

강아지 주인은 그 아이에게 이 강아지는 한쪽 다리를 쓰지 못 하니 이왕이면 다른 강아지를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는 굳이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강아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강아지 주인은 할 수 없이 한쪽 다리가 불구인 강아지를 그 아이에게 팔았다.

아주 좋아라 하며 강아지를 품에 안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강아지 주인은 가슴을 진하게 때리는 광경을 보았다. 그 아이 역시 한쪽 다리가 온전치 못했던 것이다.

한쪽 다리가 불구인 강아지를 안고 다리를 절며 걸어가는 한 소년의 모습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년은 왜 불구인 강아지를 굳이 사려고 했을까. 동정심 때문이었을까. 가여워 보여서였을까.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 전부일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그 강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강아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러나 서로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소년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편견에 시달려야 하는지 소년은 알고 있었으리라.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관이 다리 한쪽이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소년은 알고 있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팔려 갔으면 천덕꾸러기가 됐을 강아지는 그 소년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연민이나 값싼 동정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이해와 사랑, 그런 감정이 소년과 강아지 사이에 오갔으리라. 더할 수 없이 귀한 만남으로 더할 수 없이 파스한 마음이 둘 사이에 오갔을 것이다.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고생을 알고 가난을 알고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려 본 사람은 남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 줄 줄도 안다.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큰사람이 아니다. 내가 겪은 고통으로 남이 겪는 고통을 아는 사람,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나누어 가지려는 사람이 큰사람이다.